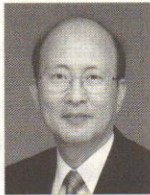


## ● ●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식량문제



이 철 호

고려대학교 영예교수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이유

세계 식량 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7~2008년의 세계 곡물파동으로 평소 톤당 100달러 수준이던 옥수수 가격이 280달러까지 치솟았고, 150달러 수준이던 밀의 국제가격이 400달러를 넘었으며, 톤당 220달러 수준이던 콩 값이 550달러로 올랐다. 이것은 미국이 옥수수를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량 사용하면서 촉발된 일이다. 곡물 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투기자본들이 곡물시장에 대거 투입되었고 쌀의 국제시세가 덩달아 뛰어서 톤당 270달러 수준이던 장립종 쌀이 1천달러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WTO 이후 쌀시장 개방으로 쌀 수입국으로 전략한 필리핀이 킬로그램 당 1달러에 달하는 외국쌀을 수입해 먹느라 국가 파산위기에 까지 몰렸고,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식량난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아이티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8년 8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곡물시세는 다소 안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상이변으로 세계 곡물가격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2009년 중국 운남성을 비롯한 서남부 지역의 100년 이래 최대 가뭄으로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지역 2천만 명이 식량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2010년 7월 파키스탄에서는 80년래 최악의 홍수로 전 국토의 반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2010년 여름에는 러시아가 가뭄과 대규모 산불로 밀 생산량이 격감하자 밀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밀에 의존하던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졌다. 2011년에는 건조한 대륙으로 알려진 호주 동북부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고, 중국 동부지역에서 다시 대규모 가뭄 피해가 일어나 세계 곡물가격은 2008년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금년에는 미국 corn-belt의 90%에 달하는 광범한 지역에서 50년 만에 겪는 최대 가뭄 사태로 옥수수 가격을 비롯해서 콩과 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7월 31일 CNN Money 통신은 지난 6주간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50% 올라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콩은 20% 올랐다고 보고했다. 세계 최대 투자자 문화사의 하나인 Blanchard는 미 농무부(USDA)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가뭄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 식품가격이 2.5~3.5% 인상되며, 2013년에는 3~4%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쇠고기 가격은 5% 오를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식량수출국이다. 세계 총 옥수수 교역량의 57%, 콩 교역량의 44%, 밀 교역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가뭄에 의한 미국의 흉년은 전 세계의 흉년이 되고 있으며, 식량의 대부분, 곡물수요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곡물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능력이 없어 곡물 메이저나 일본의 곡물 에이전트를 통해 구입하므로 가격이나 구입 자체에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과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 증대 이외에도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이 경제성장하면서 동물성식품의 소비가 증가하여 사료곡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14억 인구와 인도의 12억 인구가 우리처럼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 세계 시장에 나오는 곡물을 싸쓸이해도 모자라는 지경이 된다. 그 때에는 돈이 있어도 사울 식량이 없게 된다.

한편 과학계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가뭄, 냉해, 염분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작물 신품종들이 개발되면 세계 식량위기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기술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편견과 유럽과 같이 이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려는 국가 간 이기주의로 인해 이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식량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특히 바이오연료의 생산으로 잉여농산물 시대는 지나가고 곡물 생산자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식량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를 감지한 세계 주요 식량수출국들이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수출을 제한하는 식량 무기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식량안보에 대한 자세는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현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 경제성장을 이루어 지금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하루 세 끼 먹는데 걱정이 없고 슈퍼에는 먹을 게 산처럼 쌓여있어 식량안보를 말하면 무슨 잠꼬대냐는 듯이 본다. 이렇게 국민이 식량안보에 대한 의식이 없으므로 정부도, 정치인도, 언론도, 학자도 식량에 대한 걱정이 없고 늘 풍족하게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수산 식품부가 계획한 식량자급률 전망치를 보면 식량증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1년 7월에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국가적 전략이 없다. 이것이 일본과의 차이점이다.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우리보다 높고 앞으로 더 높아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쌀의 자급은 우리 농정이 이룬 최대의 값진 성과이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쌀시장 개방 저지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식량의 30%도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남아도는 것을 사회적 이슈로 삼아 국민들로 하여금 전체 식량이 남아도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쌀의 자급에 지나치게 안주하여 다른 식량의 증산을 게을리했다. 한국인의 제2의 식량인 식용 콩의 자급은 가능함에도 이를 실현하려는 정책의지가 없다. 현재 식용 콩의 자급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10~20년 안에 세계 식량대란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식량무기화에 종속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대처방안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온 국민이 합심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 우리가 해야 할 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11년 3월부터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에게 세계의 식량사정과 우리의 식량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식량자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국민운동이다. 이를 위하여 10가지의 실천 강령을 채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 건강을 위해 신선한 제철음식과 근처식품을 먹는다. 자연과 동화하는 신도불이의 신선한 제철음식으로 성인병을 예방하고 식량자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건강과 활력을 위해 아침밥을 꼭 먹는다. 밤늦도록 기름진 음식을 폭식하고 아침을 거르는 나쁜 습관으로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에 걸린다. 국민의 1/3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온 국민이 아침밥을 먹으면 식량자급률을 3% 올릴 수 있다.

(3) 음식을 아껴먹고 잔반을 줄여 음식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한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식량의 약 1/3이 음식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한다. 음식낭비를 반으로 줄이면 식량자급률을 15% 올릴 수 있다. 포장식품의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의 70%인데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 것으로 알고 마구 버리는 잘못만 고쳐도 식량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4) 텃밭과 가정 주변에서 필요한 채소를 가꾸 먹는다. 집에서 유기농채소 키우기, 주말농장 등을 활성화하여 식량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국민을 만든다.

(5) 유희지를 경작하고 이모작을 실천하여 식량증산에 힘쓴다. 농민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도록 농가소득보존제도를 강화하며, 농지보존제를 강화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킨다. 농업의 환경개선 기여금, 탄소배출량 저감

화 보상제도 등 WTO 규제를 피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주는 제도를 개발한다. 축산업 허가제로 분뇨방출을 위한 농지확보와 조사료의 일정량을 의무 생산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 국산 쌀의 식미와 품질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어 국민이 즐겨먹는 주식이 되게 한다. WTO의 최소시장접근방식(MMA)에 의해 쌀의 의무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쌀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때를 대비하여 국산 쌀의 품질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산 쌀이 우리 국민의 기호와 건강에 가장 좋은 쌀임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7) 국산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여 세계인이 선호하는 한국음식을 만든다. 한국인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은 대단히 높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이고 국산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한식세계화, 기능성식품 개발 등을 통해 한식이 세계시장에서 고급식품으로 팔리도록 해야 한다.

(8) 식품산업을 식량공급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육성하는 사회를 만든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식품산업을 내수레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여 식량전쟁의 시대에 우리의 식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첨병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9) 생물유전자원과 주변 해역의 어족을 보존하여 지속적인 식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생물유전자원을 수집 보존하여 종자개발 능력을 높이고, 유전자원의 보존과 육성을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10) 농어촌을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국민이 된다. 농어업은 식량생산

기능 이외에도 국토를 관리하고 수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정화하여 삶의 터전을 유지 관리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WTO에 가입하고 미국, EU 등과 FTA를 맺으면서 소외되고 피해를 본 농·어업 분야에 대폭적인 손실 보전을 하여줌으로서 침체에 빠진 농어촌을 되살려야 한다.

## 맺는 말

식량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의식주 중에 다른 것은 없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도 없으면 다소 불편할 뿐이지 식량처럼 생명과 직결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맹종하여 우리의 식량자급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 식량의 반 이상,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식량문제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민족이 되려면 식량자급을 먼저 달성해야 한다. 우리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까지 식량부족의 걱정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려면 지금 우리가 식량 자급률 1%를 올리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나라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어린 아이들 까지 각자 할 일을 정하여 실천하는 식량자급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을 해야 한다.